

행복한 SD in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물 문제와 개발협력의 과제

일시 2016. 3. 9(수) 오후 3~6시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10호(영원홀)

주최

녹색ODA센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 행사순서

1 행복한 SD 포럼 - 소개 및 향후 계획 발표

2 포럼 주제 발표

반동의 물분야 개발협력의 사례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자카르타 상습 침수지역 물 분야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도시빈민의 시선

이경묵(서울대 인류학과 박사 수료)

인도네시아 기업의 환경분야 CSR

엄은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3 종합 토론 - 바람직한 한-인니 환경협력을 위한 제언

Photo | Flickr | Trey Ratcliff



## 어가는 말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녹색ODA 센터는 한국의 ODA 사업에 대한 환경적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센터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행복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내부 포럼과 공개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개도국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에 더하여, 우리사회와 우리 자신은 정말 행복한 발전을 위해 가고 있는가 하는 고민도 같이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제의 성장이나 소득의 향상이 그대로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대표적인 근거로 “한국의 사례”가 종종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Korean Puzzle”을 개발도상국이 따라와야 할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보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해본 올해의 월례포럼의 주제가 “행복한 SD”입니다.

“행복한 SD”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사업의 주제일 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사회 그리고 우리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깊이 고민해봐야 할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에 도움을 주실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매월 한 번씩 포럼을 개최하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인도네시아로 잡은 것은 과거 몇 십 년 동안 단기간에 급속한 외형적인 경제성장을 해왔던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인 것 같고, 또 지금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제협력이 인도네시아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2016. 03. 09  
녹색 ODA 센터장 최동진

***“동남아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이미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민자, 유학생이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존재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으며, 동남아가 한국인이 가장 즐겨 방문하는 관광지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2015년 말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세 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 경제통합과 공동번영을 향한 기대와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동남아센터는 이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학제 간 연구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센터는 2012년 9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신흥지역연구 2단계 연구사업(‘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과제(메콩유역의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를 추가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부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대륙부 동남아시아(메콩유역국가)를 포괄하는 양대 연구 축의 기반이 만들어짐에 따라 동남아센터는 명실상부 동남아의 전 지역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녹색 ODA센터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세 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본 포럼은 아세안의 대표주자인 인도네시아를 사례로 <물과 개발협력>이란 주제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라 여겨집니다. 본 포럼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발협력과 환경협력의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03.09.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장 오명석



## 행복한 SD 포럼 소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병설  
녹색ODA센터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

4 (화)

### 창/립/선/언/문

#### 기후변화 시대의 녹색ODA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문제는 비단 인류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이용이 고착화된 결과 생태계의 파괴, 동식물의 멸종, 에너지의 고갈 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문명의 존속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한다는 사실이다. 1987년에 발표된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는 올해 6월, 리우+20 환경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진화된 모습으로 세계 시민들의 성찰과 희망을 담아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수많은 선언과 협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개발을 통합하는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중의 목표는 지금까지 산업화의 길을 걸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버거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자연의 수용능력을 도외시한 선진국들의 발전방식에서 비롯된 지구환경의 위기는, 개발과 성장방식을 규정하는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개발협력의 역사는 수많은 시행착오의 역사였다. 그 과정에서 공여국들이 얻은 교훈은, ODA 사업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 여성과 환경의 관점을 주류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녹색 ODA는 과거의 개발원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결과물로서, 더 이상 하드웨어와 개발 위주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환경과 생태의 위기에 따른 피해는 ODA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국제사회의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 녹색 ODA의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에서 녹색 ODA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 지금부터 올바른 길을 찾아 나선다면, 녹색 ODA는 기후변화와 빈곤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유력한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녹색ODA센터를 창립하고자 한다. 녹색ODA센터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성장 과정에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감시와 포괄적인 대안 제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주최 KDI 2012년 11월 13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병설  
녹색ODA센터

## 녹색ODA센터의 운영 및 사업방향

### 1. 명칭

- 녹색ODA센터

### 2. 비전과 가치

#### 2-1. 지향

- 한국이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파트너 국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발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 ODA의 주류화를 지향한다.

#### 2-2. 역할

- 수원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하는 ODA의 실현
-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구현하는 ODA 실현
- 인간 권리를 중시하고 수원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ODA의 실현

### 3. 조직·운영(안)

- 녹색ODA센터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병설 기관으로 출범한 후, 향후 여건에 따라 독립된 활동의 근거를 확보한다.
-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 4. 사업방향과 전략

- 연구 : 정책제언과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활동
- 주창 :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어드보커시(advocacy) 활동
- 소통 : 녹색 ODA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육활동
- 감시 : 현장 평가를 통한 감시활동
- 연대 : 파트너 국가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일시 2014년 11월 6일(목) 1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녹색ODA센터(기후변화행동연구소), 충남발전연구원, 국경없는 과학기술지회  
후원 국토환경연구소, (사)환경과 문명

## <월레포럼 :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 1. 취지

- 사회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지구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 공론화
- 소득과 GDP보다는 행복지수와 지구행복지수를 높이는 개발 모색

### 2. 주제

- 행복한 개발 혹은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행복한 개발, 행복한 삶에 대한 생각과 실천 활동에 대해서 들음.
- 행복한 지구촌, 행복한 한반도, 행복한 삶에 관한 주제
- 국제협력과 ODA, 북한 지역개발,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은퇴 후의 삶, 청년의 도전,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연구소 등등

### 3. 운영 방식

- 주제 : 포럼의 취지에 동의하는 다른 기관이나 모임과 공동운영 (포럼운영위원회 형식)
  - 함께할 단체나 조직들이 분명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녹색 ODA 센터에서 간사 역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한반도발전연구원, 국토환경연구소, 서울대아시아연구소 등)
- 일정
  - 매달 일정한 요일과 장소를 정해서 주최 (잠정: 매주 2째주 수요일 저녁)
- 발표와 토론
  -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1인으로 하고, 발표 후 자유롭게 토론, 가능한 경우 온라인 중계
- 참여 범위
  - 포럼 주관 단체의 회원은 무료(자료집 유료)이고, 원칙적으로 유료(1만원)
  - 참가비는 강사료와 자료집 제작비 등으로 지출

## 2016년의 월레 포럼 주제 : 행복한 SD

3월 9일 : 행복한 SD in 인도네시아 (공개 토론회)

4월 6일: 행복 경제학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5월 11일: 행복한 인생 (김웅용 신한대학교 교수)

6월 8일: 개발과 행복지수 (고재경 박사, 경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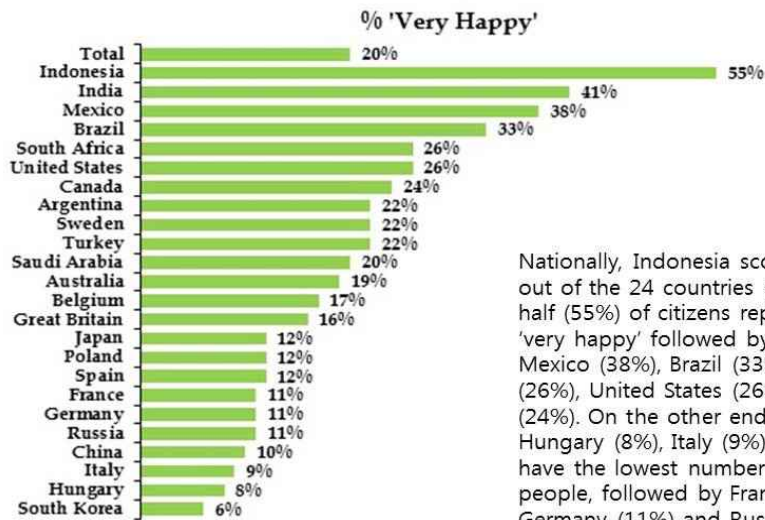




## 차 례

1. 지표로 본 인도네시아
2.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개발협력
3. 인도네시아의 물문제
4. 반동의 물협력 사례
5. 맺는 말

## Global Happiness Report (Ipsos, 2012)



Nationally, Indonesia scores the happiest out of the 24 countries surveyed with over half (55%) of citizens reporting they are 'very happy' followed by India (41%), Mexico (38%), Brazil (33%), South Africa (26%), United States (26%) and Canada (24%). On the other end, South Korea (6%), Hungary (8%), Italy (9%) and China (10%) have the lowest number of 'very happy' people, followed by France (11%), Germany (11%) and Russia (11%).

### 1. 지표로 본 인도네시아 (HPI 2012)



HPI score

55.5

Ranked #14 of 151

Click a component

Experienced well-being	Life expectancy	Ecological Footprint
5.5	69.4	1.1
Ranked #70 of 151	Ranked #93 of 151	Ranked #22 of 151

지구촌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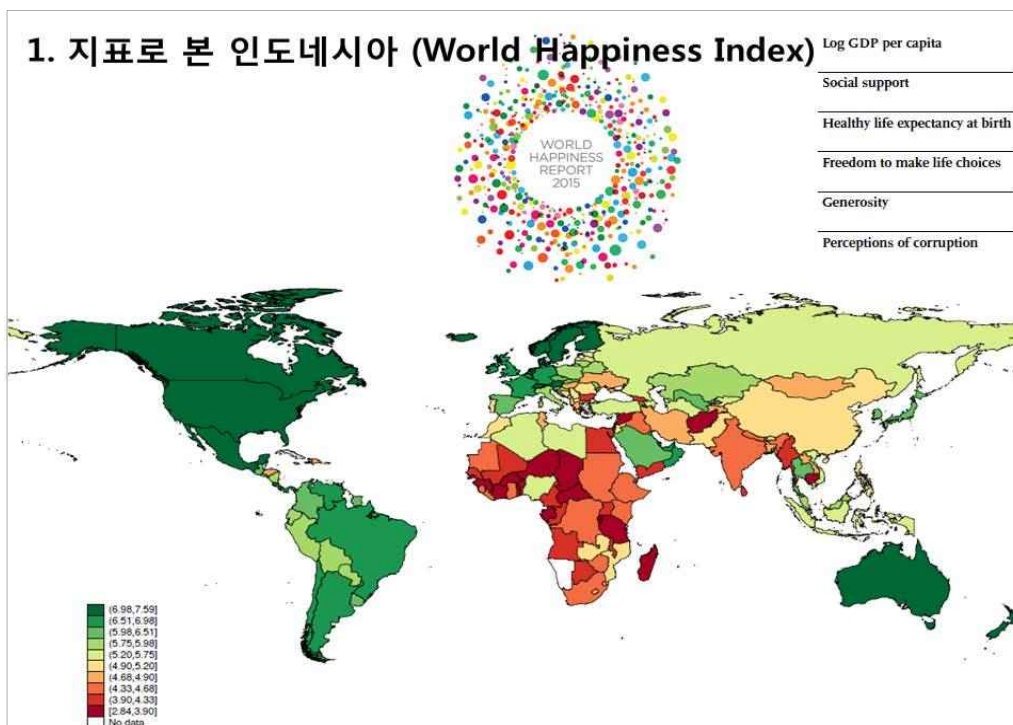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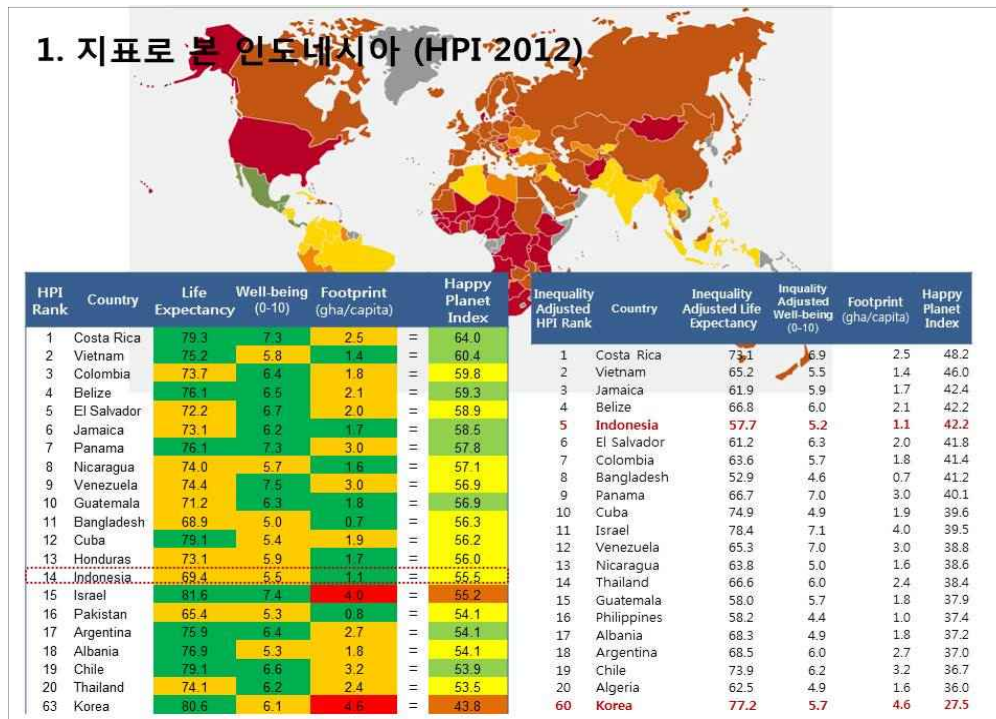
영국의 신경재재단이 2006년 7월에 도입한 지수로 사람들의 행복과 참살이 지수를 말한 것이다. 삶의 행복지표, 환경오염지표, 기대지수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HPI 점수가 55.5으로 14위를 기록.

- 기대수명에서는 중간
- Experienced well-being에서도 중간
- 생태발자국 순위는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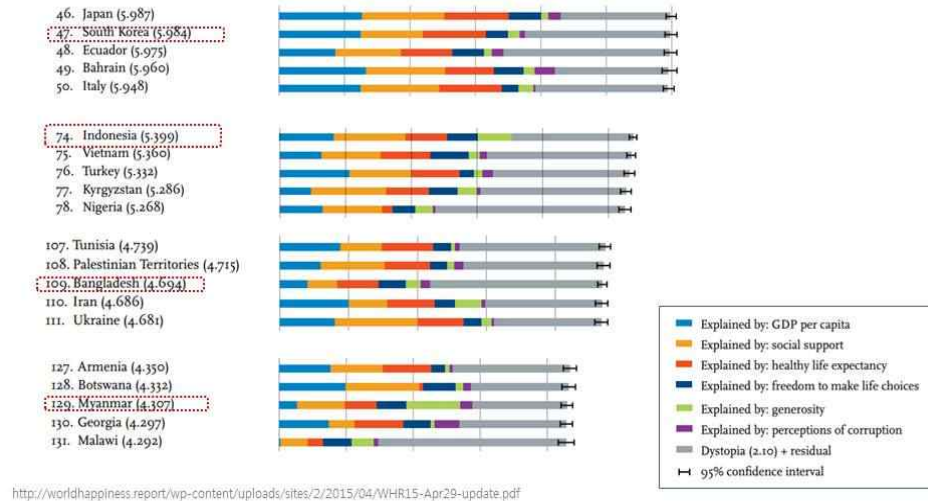
Other statistics

- GDP per capita (\$PPP): 4,325 (미국의 10%미만)
- Population: 240 million (#4 of 151)
- Land area (square km): 1.8 million (#15 of 151)
- Population density (명/km): 132 (#42 of 151)
- Governance Ranking (WGI): #91



## 1. 지표로 본 인도네시아 (World Happiness Index)

- UN 산하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가 158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스위스가 꼽혔으며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집중 포진되었다.



## 1. 지표로 본 인도네시아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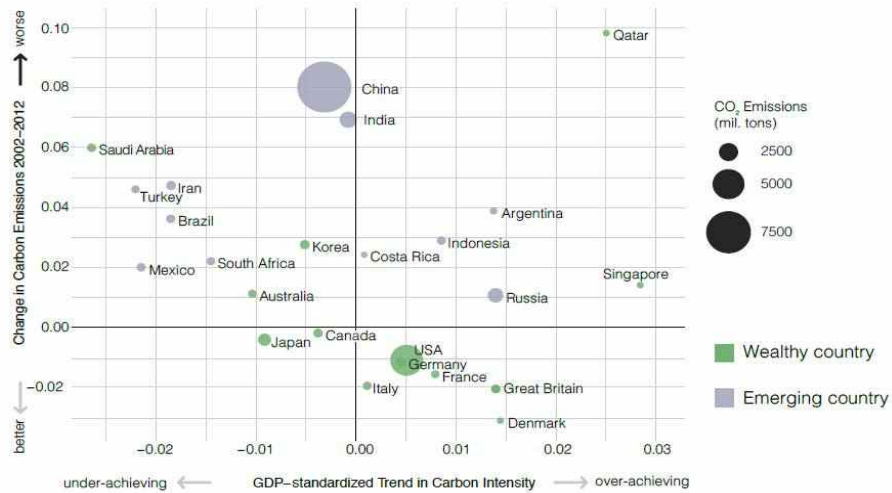
9개 분야 20개 이상의 지표로 평가





## 1. 지표로 본 인도네시아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 the 2016 EPI for selected top carbon-emitting countries, gauged according to the GDP-standardized Trend in Carbon Intensity and Trend in Carbon Emissions. Source: 2016 EPI.










## 1. 지표로 본 인도네시아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EPI 2016 Rankings

Rank	Country	Score	Peer Comp.*	Rank	Country	Score	Peer Comp.*	Rank	Country	Score	Peer Comp.*	Rank	Country	Score	Peer Comp.*
1	Finland	90.68	↑	31	Azerbaijan	83.78	↑	61	Algeria	71.14	↑	101	Egypt	66.40	↓
2	Iceland	90.51	↑	32	Russia	83.52	↑	62	Tunisia	71.09	↑	105	Iran	66.32	↓
3	Sweden	90.43	↑	33	Bulgaria	83.4	↓	63	Malta	70.85	↑	106	Zambia	66.06	↑
4	Denmark	89.21	↑	34	Romania	83.24	↓	64	Morocco	70.84	↑	107	Indonesia	65.85	↑
5	Slovenia	88.96	↑	35	Belarus	82.3	↑	65	Uruguay	70.72	↑	108	Sri Lanka	65.55	↑
6	Spain	88.91	↑	36	Netherlands	82.03	↓	66	Philippines	70.72	↑	109	China	65.1	↓
7	Portugal	88.63	↑	37	Armenia	81.6	↑	67	Mexico	70.72	↑	110	Bhutan	64.99	↓
8	Estonia	88.59	↑	38	Poland	81.26	↓	68	Belgium	70.61	↑	111	Georgia	64.96	↓
9	Malta	88.48	↑	39	Japan	80.59	↑	69	Kazakhstan	70.52	↑	112	Seychelles	64.92	↓
10	France	88.2	↑	40	Cyprus	80.24	↓	70	Dominican Republic	70.48	↑	113	Kuwait	64.41	↓
11	New Zealand	88	↑	41	Belgium	80.15	↓	71	Kyrgyzstan	70.48	↑	114	Mongolia	64.39	↓
12	United Kingdom	87.38	↑	42	Costa Rica	80.03	↑	72	Tajikistan	70.36	↓	115	Nicaragua	64.19	↓
13	Australia	87.22	↑	43	Argentina	79.84	↑	73	Paraguay	70.28	↑	116	Iraq	63.97	↓
14	Singapore	87.04	↑	44	Ukraine	79.69	↑	74	Jordan	70.24	↓	117	Senegal	63.73	↓
15	Croatia	86.96	↑	45	Cuba	79.04	↑	75	Guyana	70.2	↑	118	Uzbekistan	63.67	↓
16	Switzerland	86.93	↑	46	Brazil	78.9	↓	76	Bolivia	70.19	↑	119	Libya	63.29	↓
17	Norway	86.9	↑	47	Montenegro	78.89	↓	77	Mauritius	70.19	↑	120	Grenada	63.28	↓
18	Austria	86.64	↑	48	Serbia	78.67	↑	78	Namibia	70.14	↑				
19	Ireland	86.6	↑	49	Israel	78.14	↑	79	Botswana	70.12	↑				
20	Luxembourg	86.58	↑	50	Macedonia	78.02	↑	80	South Korea	70.11	↑				
21	Greece	85.81	↓	51	Panama	78	↑	81	South Africa	70.02	↑				
22	Latvia	85.71	↓	52	Chile	77.67	↑	82	Paraguay	70.36	↓				
23	Lithuania	85.49	↓	53	Tunisia	77.28	↑	83	Algeria	70.28	↑				
24	Slovakia	85.42	↓	54	Jamaica	77.02	↑	84	Turkmenistan	70.24	↓				
25	Canada	85.06	↑	55	Moldova	76.69	↑	85	Samoa	70.2	↑				
26	United States of America	84.72	↓	56	Venezuela	76.23	↑	86	Bahrain	70.07	↑				
27	Czech Republic	84.67	↓	57	Colombia	75.93	↑	87	Qatar	69.94	↓				
28	Hungary	84.6	↓	58	Dominican Republic	75.32	↑	88	Honduras	69.84	↓				
29	Italy	84.48	↓	59	Fiji	75.29	↑	89	Guatemala	69.64	↓				
30	Germany	84.26	↓	60	Taiwan	74.88	↑	90	Equatorial Guinea	69.59	↑				

\* The Peer Comparison column identifies whether a country performs better or worse than countries in its region.



NAME OF INDICATOR	SCORE	RANK	10 YEAR CHANGE
 Health Impacts	75.43	78	
 Air Quality	80.36	92	
 Water and Sanitation	74.66	104	
Unsafe Sanitation	73.03	110	
Drinking Water Quality	76.3	99	
 Water Resources	12.69	128	
Wastewater Treatment	12.69	128	
 Agriculture	84.31	90	
 Forests	12.96	109	
 Fisheries	23.59	127	
 Biodiversity and Habitat	81.62	83	
 Climate and Energy	81.59	41	

## 1. 지표로 본 인도네시아 : 개황

### 인도네시아

국 명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위 치	인도차이나반도 남동부에 위치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와 접경)		
수 도 (주요도시)	자카르타(수도: 1200만 명), 자바(1억 3,500만 명), 수마트라(5,000만 명), 슬라웨시(1,600만 명), 칼리만탄(1,200만 명), 약 18,108개의 섬		
기 후	연 평균기온 25~28℃, 고온다습, 열대성 몬순기후		
종 족	자바족 (45%), 순다족 (13.6%) 등 300여 종족		
면 적	190만㎢(한반도의 9배)	GDP	8,957억 달러 (2015년 추정)
인 구	2억 5천5백만 명 (2015년 추정)	1인당 GDP	3,511달러 (2015년 추정)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루피아 Rupia (IDR)
종교	회교(87%), 개신교(6%), 가톨릭(3%), 힌두교(2%)	언 어	인도네시아어(공용어)

## 1. 지표로 본 인도네시아 : MDGs

새천년 개발목표의 대표적 지표		과거 데이터	최근 데이터
목표 1	1일 1.25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 비율	54.3% (1990)	18.1% (2010)
목표 2	초등교육 순취학율	94.6% (1990)	99.0% (2011)
목표 3	초등교육 남자 1인당 여학생 비율	0.96명 (1990)	1.02명 (2011)
목표 4	5세 미만 영아 사망률 (1,000명당)	83.8명 (1990)	31.0명 (2012)
목표 5	임산부 사망 수 (출생아 10만명당)	430명 (1990)	220명 (2010)
목표 6	15~49세 HIV 감염률 (100명당 연간 신규감염자)	0.01명 (2001)	0.04명 (2011)
목표 7	개선된 수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69.8%(1990)	84.3% (2011)
	도시 위생(sanitation) 접근 비율	53.6% (1993)	69.5% (2009)

## 2.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개발협력

주요 경제지표의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2014)

구 분		2011	2012	2013	비고	한국 (2013)
GDP	명목(억불)	7,422	8,241	9,083	세계 16위(WB, 2013), 한국 14위	13,045(WB)
	1인당(불)	3,466	3,578	3,466	루피아 가치 하락으로 인한 명목 GDP 하락	25,977(WB)
경제성장률(%)		6.5	6.2	5.8	G20 국가 중 2위 고성장 (1위는 중국)	3.0%(BoK)
실업률(%)		6.5	6.1	6.25	6%에서 안정화	3.1%(BoK)
물가상승률(%)		3.8	4.3	7.72	14년은 6%대 전망	1.3%(BoK)
중앙은행기준금리(%)		6.0	5.75	7.5	13년 4차례에 인상	2.25%(BoK)
외환보유고(억불)		1,113	1,128	994	6개월치 수입, 단기외채 상환가능	3,465(BoK)
달러당 환율 (루피아/\$)		8,700	9,670	12,190	14년 11,500 루피아로 안정화 예상	1,095(BoK)
교역	수출(억불)	2,036	1,900	1,825	신흥국 경제의 성장을 둔화로 인한 국제 광물자원 가격 하락이 주요인	5,596(관세청)
	수입(억불)	1,774	1,917	1,866		5,156(관세청)
	무역수지(억불)	263	△17	△41		441(관세청)

## 2.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인니 경제특별구역 설립 협력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운영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인니 SEZ(경제특별구역) 설립과 외국인 투자 증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강화
농기계산업 협력	○ 인니 벼농사 농업기계화 단지 조성 및 운영 노하우 전수 협력지원 → 인니의 농기계화 확산을 통해 한국기업의 인니 진출 확대 도모
자카르타 해안 방조제 사업	○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지반 침하, 해수면 상승 및 홍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해안 방조제 사업 추진(347억불 규모)
석탄화력 발전	○ 수마트라 지역 등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운영(38억달러 규모)
조선산업 협력	○ 인니 1,400톤급 잠수함 3척 등 프로젝트(11억불) 수주 지원, LNG선 건조 등과 연계한 해양기자재 시험, 인증협력 사업 등 조선협력 확대
인도네시아 칠리웅강(江) 복원사업	○ 인니의 칠리웅강(江) 복원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및 수자원 확보 지원(130억달러 규모) : 자카르타 시내 칠리웅강 일부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 설치 등 시범사업 기 추진(100억원 규모)
인도네시아 치타룸강(江) 수질 개선 사업	○ 인니 서부 치타룸강(江) 상수원 수질개선 지원
농산업복합단지 (MIC) 조성	○ 농지 개발을 통해 농경지를 확보하고, 가공·유통 등 연관산업 진출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110억달러 규모)
페칸바루 상수도 개선 사업	○ 수마트라섬 페칸바루시의 상수도 수질 개선 사업 추진 (2.37억불, '15~'20)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북부 해안은 급격한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자카르타 전역은 매년 우기 때마다 상습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 더욱이 만성적 교통체증, 식수 및 용수부족, 하수처리체계 미비로 인한 강 오염의 심각화로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자카르타 대방조제 건설을 포함하는 '수도권 통합 해안 종합 개발사업(NCICD)'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고 실현가능한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국에 코이카를 통해 협력을 요청.



**자카르타대방조제 사업**은 수질로 발방 유도요노 대통령 때 착공한 메가프로젝트로 길이 32km, 최대 높이 75m, 폭 13m의 규모로 2014~2017년까지 8km 구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배후단지까지 완성할 계획. 사업비는 347억 달러(약 37조원).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선 1단계 구간은 정부예산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구간은 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기업이 있느냐는 회의적 지적도 받고 있음.

"대방조제 사업은 아직 설익은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어떤 손해를 입을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를 비롯한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대방조제 사업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계산하기 위해 북부해안 간척사업을 재검토 중이다" (안드리노프 차니아고 Bappenas 장관)

### 3. 인도네시아의 물문제

#### INDONESIA - LAW ON WATER RESOURCES

Water resource is a gift from the Almighty God that provides benefit for the welfare of the entire people of Indonesia in all se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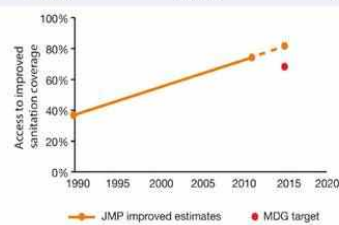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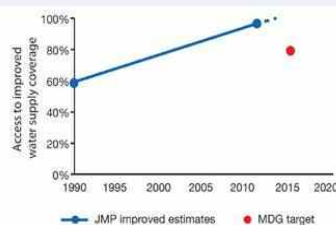
수자원은 모든 분야의 인도네시아 전체 국민의 복지를 위한 편익을 제공하는 전지전능하신 신의 선물이다.

### 3. 인도네시아의 물문제 (먹는 물)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Water and Sanitation

Indicators	Baseline, 1993 (%)	Current, 2009 (%)	MDG target, 2015 (%)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arget 7C: Halve, by 2015,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out sustainabl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7.8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sustainable access to an improved water source, urban and rural	37.73	47.71	68.87
7.8a Urban	50.58	49.82	75.29
7.8b Rural	31.61	45.72	65.81
7.9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sustainable access to basic sanitation, urban and rural	24.81	51.19	62.41
7.9a Urban	53.64	69.51	76.82
7.9b Rural	11.10	33.96	55.55

Source: BAPPENAS (2010).



SDA Coding tool, JMP (2013), and Bappenas

SDA Coding tool, JMP (2013), and B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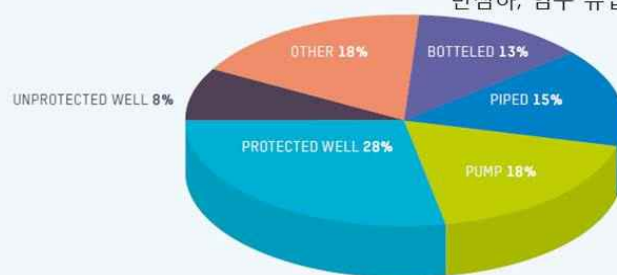
(wsp, WB, 2015)

### 3. 인도네시아의 물문제 (먹는 물)

PERCENTAGE OF HOUSEHOLD	URBAN	NATIONAL
Buy water	47.35	30.90
Do not buy water	52.65	69.10
Total	100	100

SOURCE: SUSENAS CORE DATA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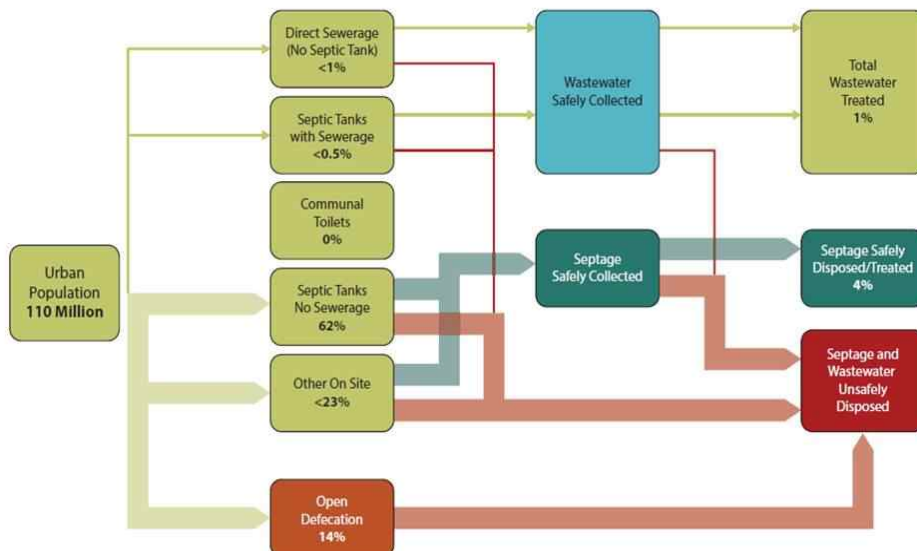
#### PRIMARY SOURCES OF DRINKING WATER NATIONWIDE



- 상수도 보급률 29% 정도(2015)
- 도시의 경우 절반가량이 물값을 내고 물을 구매(수도, 병물 등)
- 약 70%의 주민이 스스로 먹는 물 해결 (우물, 하천, 간이급수시설 등)
- 자카르타의 경우 과도한 지하수 취수로 지반침하, 염수 유입 문제

### 3. 인도네시아의 물문제(하수)

자카르타 하수도 보급률 : 2%



정화조 슬러지의 5% 미만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오수의 1% 정도만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고, 도시 거주자의 14%가 노상배변. (World Bank, 2013)



### 3. 인도네시아의 물문제 (하천 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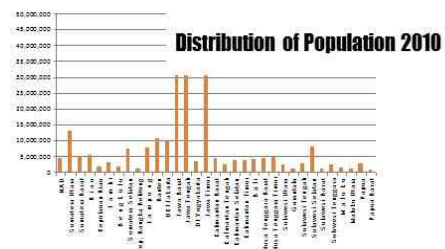


### 3. 인도네시아의 물문제

- 환경일반

- 최근 20여년 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도시집중으로 지난 1960-80년대 한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
- 자카르타와 반둥을 포함하는 광역 수도권 지역의 물 부족과 환경문제가 이미 매우 위험한 수준

**Korea:** 48.2%(23.8 million) of population live in Seoul metropolitan area(11.8% of Total area)  
**Indonesia:** More than 50% population living in Java Island (only 7% of Total Area)



### 3. 인도네시아의 물문제

#### • 물관리 및 수환경

- 지금까지의 인도네시아의 물관리는 도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이 중심
- 수도권 대도시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부 자바지역의 경우 수자원 개발가능량을 넘어서서 산업과 인구가 증가하고, 하천오염 악화로 수자원 이용여건 악화
- 2009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상수도 보급률은 25.6%에 불과하며, 500여개에 이르는 도시 중에서 11개의 도시에만 하수도시스템 운영
- 하수도보급률은 1.36% 수준에 불과하여 지속가능한 물과 환경관리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미비가 국가와 지역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큰 걸림돌
- 전체 쓰레기의 30% 이상이 제대로 처분되지 않고 하천 등에 투기되거나 소각되는 등 2차 환경오염의 발생이 심각
- 자카르타와 반둥 등 대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물문제와 환경문제는 한국의 '60~70년대 상황과 비교될 수 있지만, 훨씬 심각한 상황

### 3. 인도네시아의 물문제

#### • 한강 유역과 짜따룽강 유역의 비교 (2011, KSP)

- 대하천을 낀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은 한국과 유사
- 수자원 이용가능량은 한강보다 적은데, 훨씬 많은 인구나 산업이 집중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서 물부족, 수질, 폐기물 문제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됨.

Classifications	Han RB	Citarum RB
Basin Character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ore than 40% of total population in Han River basin</li> <li>•23 million people depend on Han River</li> <li>•Annual average runoff volume is 16 billion m<sup>3</sup> (22 % of the total national runoff volume of 72.3 billion m<sup>3</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 million of total population in Citarum River basin</li> <li>•More than 20 million people depend on</li> <li>•Annual average flow of water is 12.95 billion m<sup>3</sup> (7.65 billion m<sup>3</sup> could be regulated)</li> </ul>
Catchment Area	•26,266 km <sup>2</sup>	•6,600 km <sup>2</sup> (12,000 km <sup>2</sup> incl. 6 Ci's)
Length of Main River	•494km	•270 km
Reservoir Capacity	•7,416 million m <sup>3</sup> (8 d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aguling: 881 million m<sup>3</sup></li> <li>•Cirata: 1,973 million m<sup>3</sup></li> <li>•Jatiluhur: 2,556 million m<sup>3</sup></li> </ul>
Hydropower Plant	•2,520 MW (20 fac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aguling: 4 x 175 MW</li> <li>•Cirata: 8 x 125 MW</li> <li>•Jatiluhur: 8 x 30 MW</li> </ul>
Water Supply	•12 billion m <sup>3</sup> /year	•17 m <sup>3</sup> /s for
Irrigation water	•3.1 billion m <sup>3</sup> /year	•390,000 ha rice fields
Water Supply Service	•95.6% of people receive drinking water service through public water supply system.	•Less than 50% of population receives public water supply service
Sewerage	•94.1% (2009)	•Less than 20% of urban areas
	•Seoul City: 100% (2009)	•none of rural areas cover by sewerage system




### 3. 인도네시아의 물문제

#### • 인도네시아 물문제와 개발 협력

- 인도네시아의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물문제가 동시에 심각하게 발생
- 한국은 유무상 원조,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체 사업, 국제기구의 개발 사업 등에 다양하게 참여





**2014 춘천국제물포럼**  
CHUNCHEON GLOBAL WATER FORUM

**주제 | 물과 국제협력**  
Wat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일시 | 2014년 8월 28 ~ 29일(목, 금)
- 장소 | 춘천 라데나리조트
- 주최 | 사단법인 '춘천국제물포럼'
- 주관 | 춘천국제물포럼 2014 조직위원회, 춘천경제정의살리기시민연합,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 후원 | 강원도, 춘천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력개발수위원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미래, (주)하이트진로

『춘천국제물포럼 2014』 조직위원회  
blog.naver.com/cwwaterforum

세션1  
**Han - Citarum Rivers Water Friendship**

1층 다이아몬드홀 Diamond Hall (28일 13:00~15:30)


Chair Person: Prof Ryu, Ki Hee / Seoul National University

**주제1**  
**Lessons Learnt from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Han River Basin, Korea**  
(한강 유역 수자원 개발의 교훈)  
Dr. Ko, Ick Hwan (Vice President,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주제2**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of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통합물관리 정책)  
Mr. Adang Saf Ahmad (Secretary General, National Water Resources Council of Indonesia)

**주제3**  
**Water Resources in Bandung Indonesia - Emphasis on Water Quality (반동의 수자원 현황 수질을 중심으로)**  
Prof. Kang, Seoktae (Kyung Hee University)

토론: Prof. Iwan Kridasantausa (Institute of Technology Bandung (ITB), Indonesia) / Dr. Robertus Triweko (President of Parahyangan Catholic University, Indonesia) / Prof. Doddi Yudianto (Parahyangan Catholic University, Indonesia) / 전문성 (강원대학교 교수/아세아 태평양협력 아카데미 원장) / 최병만 (K-water연구원장) / 장석환 (대전대학교 교수) / 정연주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 / 박진용 (한림대학교 교수) / 박종민 (코이카 팀장) / 신덕진 (충청권청소년수련관 관장)



**2015**  
**춘천국제물포럼**  
CHUNCHEON GLOBAL WATER FORUM

주제 | **물과 문명** Water and Civilization

- 일시 | 2015년 9월 17일 ~ 18일(목, 금)
- 장소 | KT&G 상상마당 춘천 (스튜디오, 아트센터)

■ 주최 | 사단법인 춘천국제물포럼

■ 주관 | 춘천국제물포럼 2015 조직위원회,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원 | 강원도, 춘천시,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미래, (주)하이트진로

『춘천국제물포럼 2015』 조직위원회  
<http://ccwaterforum.or.kr>

세션7 KEI 공동주관  
Korea-Indonesia Water Friendship Talk:  
Flooding Issue and Appropriate Technologies  
나비출 (18일 09:30~12:00)

좌장: 고익환 / (주)유신 부사장  
춘천국제물포럼 2015 공동조직위원장

주제1  
**Flood Management Challenges in the Citarum River**  
Bambang Adi Riyanto (인도네시아 파라항간 카톨릭대)

주제2  
**Role of Reservoir System Operation for Flood Forecasting and Warning in the Citarum Basin**  
Herry Rachmadyanto (인도네시아 제2수자원공사)

주제3  
**Challenges and Issues of Ciliwung River**  
Taeyun Kim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주제4  
**River Basin/Watershed Management and EIA in Indonesia**  
Ary Sudijanto (Director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토론: 유기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연구원 교수 / 강석태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김정곤 한국건설환경기술 소장 / 김태원 (주)지티이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 Mr. Albert Wicaksono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상영 한국물포럼 사무국장 / 최중대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 이학원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 3. 반동의 물 협력 사례

-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의 주도인 반둥은 인도네시아에서 세번째로 큰 도시, 도시권역의 면적으로는 두번째임.
- 해발 769미터에 위치해 다른 대부분의 도시보다 시원함.
- 자카르타에서 140킬로미터, 인구는 약2,374,075명(2012.1).
- 수원은 75%를 지하수에 의존, 지하수위가 계속 떨어져서 당초 수위보다 50미터 이상 낮아졌으며, 특히 산업단지 부근 심각.
- 2006년 조사 따르면 매달 2.3~18.4 센티미터씩 지반침하.
- 2007년 기준, 생활용수의 70%, 산업용수의 60%를 지하수에 의존.
- 물다소비 업종인 섬유산업이 주요 산업이며, 한국기업이 많음.
- 심층 대수층에서 지하수 유량의 43% 가까이를 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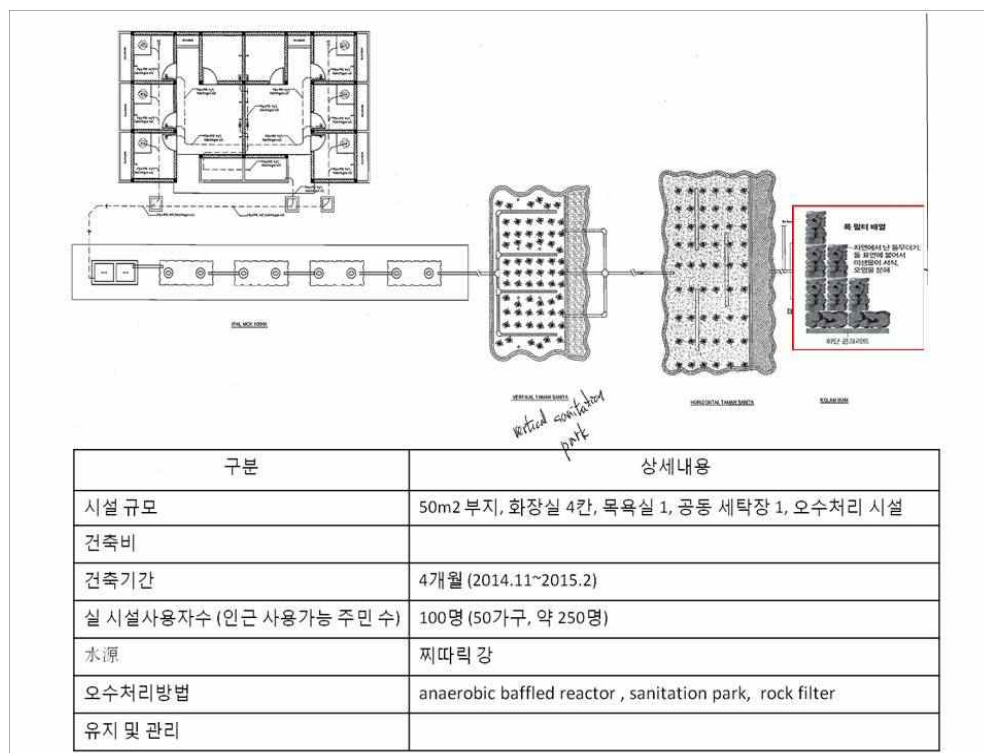


## Pilot WWTP for Urban Poo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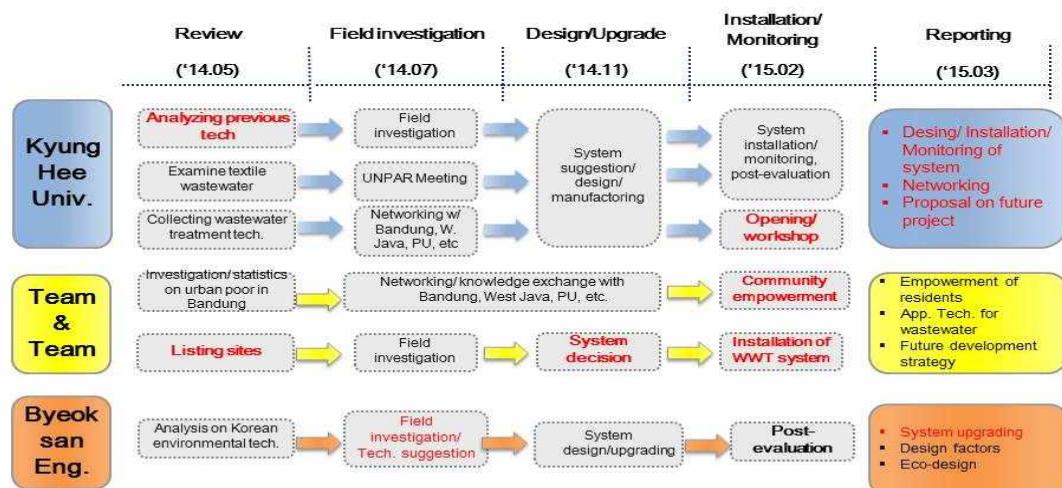








## Time Table













## 5. 맺는 말

1. 인도네시아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물문제, 환경문제를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함.
2. 인도네시아의 물 문제는 한국의 방식이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여 풀기보다는 인니 현지여건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접근 방법이 필요
3. 현지 네트워크, 주민조직, 대학,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주민의 필요에 기반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함.
4.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되고 여러가지 방식의 협력 프로그램이 동반해서 이루어져야 함
5.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한-인니 협력 네트워크와 현지 협력(거점)센터 등의 플랫폼** 필요.





## 자카르타 상습 침수지역 물 분야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도시 빈민의 시선 - 더 많은 물의 “인볼루션(Involution)”

이경묵(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자카르타의 P지역에서 지난 10년 간 진행되어왔던 물-문제 관련 프로젝트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상습적인 침수와 깨끗한 물의 부족은 상-하수도 관리체계와 도시 난개발 그리고 수돗물 민영화 사업의 결과 야기된 문제이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개입을 불러왔다. P지역에서 진행되어온 우물물 사용 중지 및 상수도 확충, 공동관리 대형 물탱크, 하수 정비 사업 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비공식’ 부문을 지속가능한 공식적 물-네트워크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 그 사업들은 성공했는가? 혹은 실패했는가?

위의 질문에 쉽사리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 비공식 영역이란 공식적인 것의 외부 혹은 여집합인가?
- ✓ 공식적인 것의 예외가 비공식성인가?
- ✓ 비공식 뒤에 영역(領域), 부문(部門), 성(性), 화(化)라는 단어가 결합될 때, ‘비공식’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는가?

## 1. '(비)공식'이 증식하는 자리



<사진 1> 상수도관의 도입으로 등장한 물가계의 배달 수레



<사진 2> 공동 화장실/샤워/빨래방

공식/비공식의 관계에서 ‘비공식’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공식적 물-네트워크의 확장은 비공식인 물-네트워크에 개입했으나 그것을 축출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비공식적 경제를 창출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비공식’ 경제는 상수도 보급 프로젝트 이전의 공식/비공식 경제와는 다른 ‘또 다른’ 경제가 되었다.

## 2. (비)공식성 그리고 다양체로서의 물(water multiple)과 경계-사물(boundary object)

### 2-1. 다양체로서의 물(Water Multiple)

- : 더 많은 물은 도시의 공식적인 물인 상하수도 체계와 대비된다.
- : 자카르타 (특히 빈민가)에는 '도시화된 물'보다 '항상 더 많은' 물이 있다.

### 2-2. 경계사물(Boundary-object)

- : 복수(複數)의 의미와 실천의 연쇄가 시작되는 경계-사물로서의 물



<사진 3> 계량기와 물탱크



<사진 4> 홍수가 났을 때 무상배포 된 '최고급 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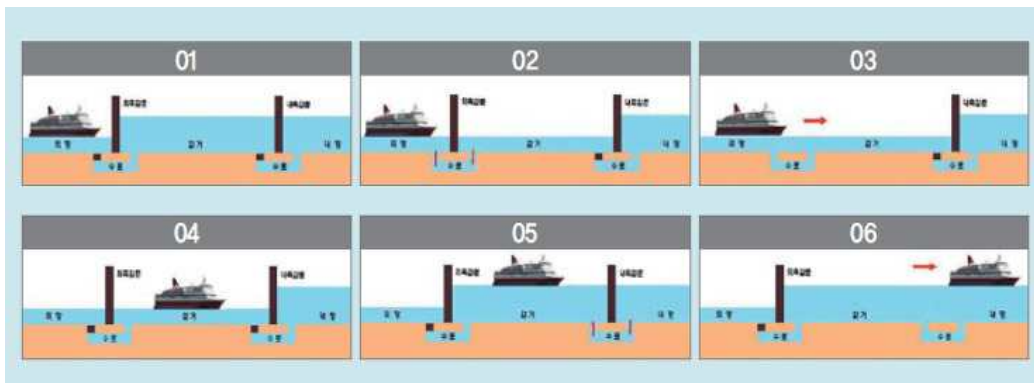


<사진 5> 물차

3. '비공식적' 물들(*air-air informal*) 그리고 막힘(*Marcel*)과 원할함(*Lancar*)

4. 연결망의 이어짐과 잘림

5. 인블루션과 기밀실/갑문



참조 : 갑문의 작동 방식

<http://korealand.tistory.com/813> (국토교통부 블로그)

기어츠는 기술혁신을 통해 다음 단계(녹색혁명, 농업가본가 형성 등)로 나아가지 못한 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인볼루션(involution)"이란 개념을 고안하였다. 그는 '완성된 형처럼 보이는 상태에 도달한 후 안정되거나 새롭게 변형되지 못한 채, 내적으로 더욱 더 복잡해짐으로써 발전을 계속하는 문화유형'이라고 인볼루션을 정의한다."

자카르타 P 지역에서 발견되는 경계사물들은 '온전한' 도시화된 물을 지니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공식적인 개발 프로젝트에 직면하여 고안해낸 '더 많은 물'의 인볼루션이 작동하는 장치이며 이것이 최악의 물-문제를 안고 사는 자카르타 도시빈민의 시선이 구체화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ODA 센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공동주관  
 행복한 SD 포럼 in 인도네시아  
 (2016. 03. 09/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인도네시아 기업의 환경분야 CSR



엄은희 선임연구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eunhui.eom@gmail.com

## 인도네시아

- 동남아시아의 도서국가 (17,000개의 섬, 다인종, 다종족, 다언어)
- 세계 최대 무슬림국가
- integration in diversity
- 세계 3대 열대우림국
- 개발도상국이자 주목 받는 신흥국(BRICS, VIP...)
- 역동적인 정치경제상황
- 지역 격차의 심화
- 심각한 부패...
- 빈부격차의 심화...

## 기업

- 대기업인가 중소기업 (SMEs)인가?
- 업종별: 자원개발(농업, 광업), 제조업(노동집약적,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서비스업, 유통 및 물류, 건설 etc...
- 다국적기업(외국인 투자 기업), 국영기업, 국내 민간기업...

## CSR

-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와 지역사회, 가족, 종업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적 개발에 공헌하는 기업의 철학(World Business Council, 1999)
- 기업 조직은 건강한 복지를 포함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고, 적용 가능한 법 준수 및 국제행동규범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물론 조직 전반에 통합적 관계를 생활화해야 한다(ISO 26000)

## CSR은 왜 제기 되었나?

- 사실상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출발과 함께 지속되었던 쟁점임.
- 시민사회 및 노동의 요구(기업내부⇒기업-사회 관계).
- 경제의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영향력 확대(국내 ⇒ 국제).
-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기업행동규범 및 기업책임 성지표 등의 개발과 이행의 촉구(예: ISO 26000/2010)

## 기업은 왜 CSR을 해야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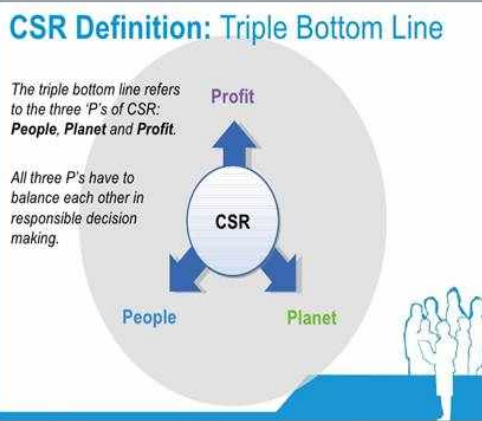
Economic drivers	Social drivers	Political drivers
- company image/reputation	- pressure from NGO/CSOs	- improved standing with government
- improved risk management	- licence to operate	- legal, regulatory drivers
- competitive advantage	- pressure from local communities	- political pressure
- pressure from business partners	- research	- licence to operate
- pressure from costumers		
- pressure from investors		
- competitiveness		

## What is a CSR?

- CSR은 “움직이는 과녁”이다(Votaw, 2003; Lisa, 2006).
- “사회적 책임”, “사회적 성과”, “사회 공헌”, “기업윤리”, “윤리경영”, “사회적 반응”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됨.
- 경영학뿐 아니라 윤리학, 정치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시각에서 접근됨.
-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CSR의 강조점 변화
  - ✓ 1989년 엑손 발데즈 사건: **환경문제**의 강조
  - ✓ 1990년대 초 나이키, 갭의 **Sweatshop** 논란: **인권과 노동** 의제가 강조
  - ✓ 2000년 초 엔론 사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자의 윤리**를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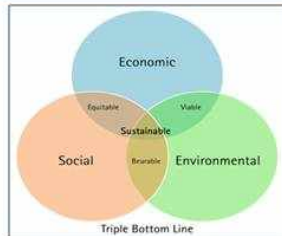


# CSR과 지속가능경영



주: 1) 고객, 주주, 협력사, 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선정한 28개사(Google, BMW, IKEA, Costco 등)  
2) '위대한 기업(Good to Great Companies)'은 Jim Collins가 'Good to Great'이란 책에서 능력 주석 수익률 을 기준으로 선정한 11개사  
자료: (좌) KIB 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 (우) CorporateRegister.com  
출처: 한국무역협회(ITT) Trade Brief(2014. 04.25. No.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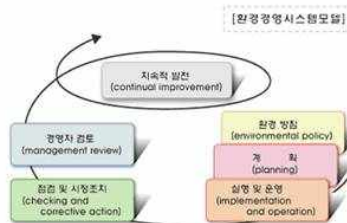
비용⇒기업가치화



## CSR과 환경(ISO 14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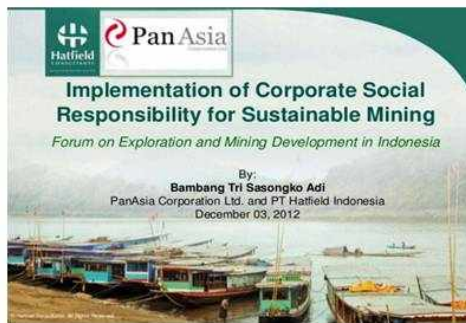
### CSR의 주제들

- 환경
- 고용기회 창출,노동,인권
- 안전, 보건
- 상품의 안전성, 질, 서비스
- 공급사슬 관리
- 준법 비즈니스 관행
- 소비자 만족, 개인정보관리
- 상품생산/소비에서 추적가능성
- 위험관리
- 거버넌스
- 정보공개 etc...





# 인도네시아의 CSR



## CSR Investment Focus in Indonesia

No.	Focus Program	Past (2006)	Current ('11-'12)
1.	Education	61%	60%
2.	Disaster relief	50%	20%
3.	Environment	48%	48%
4.	Public health	45%	44%
5.	Philanthropy	38%	21%
6.	Economic development	38%	38%
7.	Business ethic	25%	35%
8.	Human rights, labour, security	24%	26%

Source: Indonesia Business Link (downloaded November 2012)

- 대기업일수록
- 다국적 기업(외국인 투자기업일수록)
- 자원개발 분야 기업일수록

비용⇒기업가치화

# 인도네시아의 CSR- 도입과 전개

- 1994년 발리 짐바란 선언을 계기로 시작.
  - 수하르토 정부는 총 96개 재단이 인도네시아 빈곤 퇴치를 위해 수익의 2%를 강제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함.
  - 하지만 펀드의 출처와 사용이 불명확해 이 CSR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음.
- 2004년에 CSR 활동을 위한 법률(2004. No.28)을 제정함.
  - 이 법에 따르면 CSR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은 재단으로 설립돼야 하며, 이 재단은 비영리재단이어야 함.
  - 영리활동을 한다면 이 조직은 PT(Perusahaan Terbatas)로 등록돼야 함.(예 : Lippo Group의 Siloam 병원)
  - 재단의 이름은 3가지로 등록될 수 있음. 재단 설립자의 이름(예 : Putra Sampoerna Foundation, Ciputra Foundation), 회사/스폰서의 이름(예 : Bakrie Centre Foundation, Medco Foundation), 그리고 지역사회 이름(예 : Tzu Chi Indonesia Buddhist Foundation)
  - 이 재단의 주요 활동은 교육, 중소기업 지원, 환경, 그리고 빈곤 퇴치로 구성됨

출처 : 인도네시아 대사관(<http://idn.mofa.go.kr>)

연번	이름	설립자	활동
1	Dharma Bakti Astra Foundation	Astra Group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2	Putra Sampoerna	Sampoerna Group	교육, 여성, 재난복구 등
3	Eka Tjipta Foundation	Sinar Mas Group	저소득층 지원, 환경
4	Medco Foundation	Medco Group	교육, 환경, 중소기업 지원
5	Ciputra Foundation	Ciputra Group	기업가 육성과 교육
6	Djarum Foundation	Djarum Group	교육, 스포츠
7	Ancora Foundation	Gita Wirjawan	교육
8	Bakrie Center Foundation	Bakrie Group	교육
9	Bosowa Foundation	Bosowa Group	교육, 보건, 사회활동
10	Budi Santoso Foundation	Suara Merdeka Group	기업가 육성, 사회문화활동, 경제
11	Chairul Tanjung Foundation	Para Group	교육 및 보건
12	Sofyan Wanandi Foundation	Gemala Group	교육
13	SDM-IPTEK Foundation	BJ Habibie	과학 기술
14	Tzu Chi	Master Cheng Yen	사회, 보건, 교육, 문화, 환경
15	Arsat Djojohadikusumo Foundation	Hasyim Djojohadikusumo	교육, 사회문화
16	Rajawali Foundation	Rajawali Group	사회 문화
17	Tanoto Foundation	Sukanto Tanoto	사회 문화 및 기업가 육성
18	Dharma Bakti Kalbe Foundation	Kalbe Group	교육
19	Matsuhita Gobel	Rachmat Gobel	인적자원 개발
20	Tahija Foundation	Julius Tahija	교육, 문화, 보건, 환경, 사회
21	Summarecon Peduli Foundation	Summarecon	교육, 문화
22	Harapan Bangsa Foundation	Mochtar Riady	교육
23	Wings Peduli Kasih Foundation	Wings Group	사회
24	Soegeng Sarjadi Foundation	Soegeng Sarjadi	정부와 관련된 교육
25	Aksara Foundation	Nono Anwar Makarim	교육

## CSR 법제화

- 2007년 세계 최초로 기업의 CSR 활동을 의무화 하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률(UU No.40/2007) 개정안을 발표함
  - 모든 회사의 운영에 있어 그것이 자연자원과 관련된 운영 일 경우에는 CSR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74조)

"Regulating CSR is a diversion of good governance and is not a best practice."  
 "The RUU PT seems to not have the actual understanding of CSR and contradicts with CSR practices that are globally implemented by the business sector."  
 "CSR regulation is counterproductive to the promotion of CSR concept and practice."  
 "CSR regulation is a highly uncommon concept CSR regulation is counterproductive to the agenda for revising the Income Tax Law (UU PPh) aimed to increase competitiveness."  
 "CSR regulation require specific and expensive infrastructure and bureaucracy."

- 2012년 기업의 사회환경책임에 관한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 No. 47/2012) 발표.
  - in the natural resources business
  - In a business related to natural resources
  - State-owned companies
  - Business in the fields of industry, forestry, oil and gas, geothermal, water resources, coal and mineral resources, electricity, environment, human rights, labor, consumer protection, etc...

**Jakarta Post**

Business

### CSR becomes mandatory for most companies

The Jakarta Post, Jakarta | Business | Sat, July 21 2007, 11:32 AM

Andi Haswidi, The Jakarta Post, Jakarta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inally passed the controversial corporations' bill into law at a plenary meeting here Friday mak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mandatory for almost all companies outside the financial sector.

Article 74 of the law provides that a company that operates in any business field related to natural resources is required to institute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programs, and that sanctions will be imposed on non-compliant firms.

The article not only affects natural resource-based companies, such as mining, oil and gas, and plantation firms, as the commentary accompanying the legislation states that other firms that do not exploit natural resources but affect the environment must also conduct CSR programs. This means that all businesses outside the financial sector may be required to conduct CSR programs

Read also:

- CSR becomes mandatory for most companies
- State's firm hand could crush spirit of charity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now the law in Indonesia
- Analysts warn of CSR abuse by political parties
- State's firm hand could crush spirit of charity

Business News

Prepare businesspeople before joining TPP: Experts

Illegal pay-TV operators ouster Indonesia's Association

Indonesia's peatland agency depends on donations

## [참고] 주요국의 CSR 관련 법제화 동향

주요국의 CSR 관련 법제화 추진 동향	
국가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 2007년 세계 최초로 기업의 CSR 활동을 의무화 하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률(UU No.40/2007)을 제정 - 모든 회사의 운영에 있어 그것이 자연자원과 관련된 운영일 경우에는 CSR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74조)
영국	- 2000년 7월, 연가금을 사회적 책임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연기금법 시행 - 회사법 2006에 의거, 상장회사는 영업실적이나 사업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경문제, 지역이슈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프랑스	- 2001년 기업의 연례보고서에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신경재규제법」을 제정
독일	- 2001년부터 연가금운용회사에 대한 CSR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 2010년 10월 국가차원의 CSR 전략인 'CSR Action Plan' 도입 - "Made in Germany"를 CSR과 연계하여 "CSR-Made in Germany"로 사용
스웨덴	- 2007년 공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며, 2012년 모든 공기업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세우고 달성토록 법제화함 - 외교부내 '글로벌 책임을 위한 스웨덴 파트너십'이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활동을 지원
중국	- 「중앙정부관리 국영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국영기업 및 공기업 위주로 지속가능경영활동을 공시하고 이를 실행하게 함 - ISO 26000에 기초하여 민간, 외자, 국유 기업별로 각 분야별 100대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발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정부조달 우선권을, 미흡한 기업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
일본	- 「환경정보의 제공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기업 등에 대해 환경영향 감소노력을 담은 환경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표할 것을 권장
한국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2)에 의거,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녹색기술인증사향 등 공시 의무화
남아프리카 공화국	- King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를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반영, GRI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사회적책임정보를 공시토록 법으로 규정

- 2014년 4월부터 인도에서도 개정된 회사법에 의거 CSR 조항이 의무 적용 개시함.
- 순자산규모 50억 루피(약 1,00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루피(약 2,000억 원) 이상, 순이익 5,000만 루피(약 10억 원) 이상

출처: 한국무역협회(IIT) Trade Brief(2014. 04.25. No. 31)



## 인도네시아의 한인기업

- 1990년대 초반 : 조선 인삼판매상의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진출
- 1940년대 초: 일본 징용 및 종군위안부의 남방 징집
- 1960~1970년대 : 상사주재원 및 기업인들 진출(자원개발 분야)
- 1980~1990년대: 노동집약 산업 중심의 기업이전
- 2000년대 :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 금융, 유통, 자원개발 등 진출 분야의 다각화 (2015년 현재 2200여개 업체가 조업 중)



##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CSR

### 인도네시아 투자진출기업 사회책임경영 (CSR) 대상 포상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투자조정청 (BKPM) 공동 주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과 KOTRA 공동 주관으로 매년 연말에 실시함.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인도네시아 투자진출기업 중 기업의 사회 책임 경영활동 우수 업체 선정 포상함으로써, 한-인니 양국간 우호적 경제협력 분위기 및 CSR 확산 도모하려는 목적.
- 심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련 학계, 업계, 단체, 정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최종적으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및 투자조정청의 승인을 거쳐 포상대상 기업을 선정함 (필요 시 현장방문 실시 예정)
- 평가항목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 항목으로 구분 평가(정계량 + 정성)



우수 CSR 시상식은 평가 내용에 따라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산업진흥 및 지역개발' 부문에는 삼익악기, LG상사, 롯데마트가, '공유가치(CSV) 창출' 부문에는 삼성전자, 코런도, CJ인도네시아, 오스텍 임플란트가, '선린우호증진' 부문에는 포스코 인니법인이 선정됐다. 심사는 ISO 26000 기준에 따른 엄격한 계량평가와 한국 및 인니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정성평가를 거쳐 이뤄졌다(한상넷 기사, 2015-11-17).

출처: <http://www.hansangnet.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



## [사례 1]한-인니 기술학교 (삼익-KOICA-코피온 협력 모델)

- 2014 한-인도네시아 CSR 대상에서 CSR 우수기업으로 선정됨. (2015년 지역개발 부문 연속 수상)
- 삼익악기는 인도네시아 빈민 청소년 계층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공장이 위치한 보고르 철도시에 기술전문 교육기관인 '삼익기술학교'(현재는 한-인니 기술학교로 개칭)를 설립함.
- 이 학교는 KOICA 글로벌 CS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 기술력을 전수하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코피온과 삼익악기가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
- 피아노 조율, 목공예, 제빵, 봉제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 교육 후에는 각 전공별 업체와의 실습을 연계하여 70%대의 안정적인 취업률을 유지 중



## [사례 2] 미원 인도네시아 (현지화된 한인기업의 종합적 CSR)

- 73년 인도네시아 진출
- 공장 인력구성 수준에서 철저한 현지화

	1978	1982	1989	1993	1999	2000	2013
현지인 총인원	384	689	774	1046	1043	994	856*
현지인 관리자	0	5	20	33	37	37	152
현지인 계	384	694	794	1079	1080	1031	1008
한인 주재원	66	21	15	8	7	6	5
총 인원	450	715	809	1087	1087	1037	1013

\*는 미원소식 150명 포함

- 기업 정책적 차원에서 이익의 3%를 CSR에 투자(CSR 공식 홈페이지)



영세상인 대상 시장창출형 CSR

경제력이 없는 실업자 또는 영세 포장마차 상인을 대상으로 성실하고 의욕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위생적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포장마차와 운영비품을 지급하고, 인도네시아인 미트볼(meat ball; Indonesian Bakso) 조리방법과, 식품위생안전, 이슬람 Halal, 포장마차 운영교육 등을 실시하여 12개월 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운영 지도 및 지원을 통한 불우한 영세민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미원 인도네시아의 사회공헌활동을 시행 중임(<http://srvwire.co.kr/archives/1527>).

## [사례 3] 코린도(KORINDO) (자원 개발 기업의 지역사회 관계맺기)



- 산림보호, 교육(장학), 환경, 자선사업, 지역사회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CSR 진행 중
- 개발현장(파푸아 아시끼 사업장)에서 폭넓은 지역사회 사업 진행 중.

코린도그룹, 인도네시아 CSR 활동내역

시기	시행단계	시행착오 및 취약단계	발전 및 정착단계
연도	1994~1998년	1999~2005년	2006년~현재
대상	회사 인근 거주민	-회사 인근 거주민 -지방 정부(면 단위)	-회사 인근 거주민 -지방 정부(면, 군단위)
CSR 활동내역	-원주민 선 고용 정책 -생물 다양성 지원 -학용품, 교육 지원 -영농자재, 종자 및 과실수 모듬 지원	-원주민 선 고용, 사범장학사업 지원 -생물, 의류 등 생필품 지원 -마을길 개설, 보수 지원 -교사급여, 학용품, 학교 개보수 지원 -영농자재, 비료지원	-교육, 장학금 지원 -보건, 위생 지원 -주민 소득증대지원 (고무농장 조성 28ha) -공공시설 지원, 공익 사업 -지방정부 협력 사업

자료: 코린도그룹

## [사례 4] 1촌 1품(OVOP, One Village One Product) 협력사업

- 한 기업이 특정지역과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CSR활동
- 2013년 양국정상회담 공동선언과 KOTRA-인니 중소기업부간 체결한 MOU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
- 기존 기부형 CSR과 다른 시장형 CSR 지향.
-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로서 지역협동조합 지원정책이자 청년 창업의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갖춘.



1촌1품 후원기업 현황

후원기업	제품	지역/주(州)	조관명
CJ 인도네시아	코코넛 설탕	쿨론 프로그/목자 (Kulon Progo)	KSU 자미로고 (KSU Jatirogo)
삼성 전자 인도네시아	수공예품 (Ketak)	자나프리아/물복 (Janapria)	코프완 하라반 브르사루 (Kopwan Harapan Bersatu)
롯데마트	전통직물 (Tenu Ika)	프라야 바랏/물복 (Praya Barat)	코프완 스타겐 (Kopwan Stagen)
하나은행	커피(Arabica)	푸르위레 조/목자 (Purworejo)	코프완 스리칸디 (Kopwan Srikandi)
이글(Eagle) (*)	대나무 전통공예 (Bambu)	바둥/방리 (Badung)	코프완 수브르 메르타 부아나 (Koperasi Sumber Mertha Buana)
		가루트/서무자바 (Garut)	KUD 만드리 짜곤당 (KUD Mandri Cikondang)

\* KMK그룹 산하 신발제조기업, 인니 토종 브랜드 1위



## [참고자료]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CSR 관련 인식조사 (2010, KOTRA) -2005년 이후 투자진출 상위 10개 신흥국(36/210)



**설문응답기업의 CSR 인지도**



**CSR 실천여부(좌) 및 실천기업의 모기업 규모 분석(우)**



**설문응답기업의 업종별 CSR 경영 실천 여부 분석**

■(가) 실천하고 있다 ■(나) 향후 계획은 있지만 아직 실천한 적은 없다 ■(다) 실천한 적도 없고 아직 계획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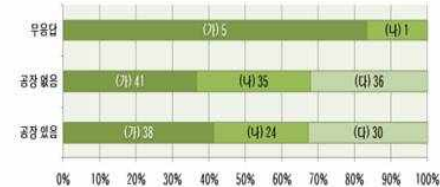
주: 1. 그래프 위의 숫자는 기업 수를 나타냄

**CSR 경영의 목적 순위 (복수 응답)**

순위	내용	기업 수 (개사)
1	가난한 사회계층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58
2	기업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있기에	48
3	직원들의 내부단합, 사기고양, 자긍심 제고를 위해	44
4	기업 및 자사 상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35
5	현 사회가 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32
6	기업스캔들 예방 등 사회가 기업을 적대시하는 상황 예방을 위해	26
7	정부,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관련 단체의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25
8	기업의 장기적 경영실적 증진을 위해	17
9	기업의 직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15
10	기업의 대부분 주주들이 원하기 때문에	9
11	CSR활동을 통해 사회·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사업기회 창출을 위해	8
12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7
13	경쟁회사가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때문에	2
합계		326

**설문응답기업의 공공보유여부의 CSR 경영 실천 여부와 상관관계 분석**

■(가) 실천하고 있다 ■(나) 향후 계획은 있지만 아직 실천한 적은 없다 ■(다) 실천한 적도 없고 아직 계획도 없다





실천한 CSR 활동의 내용 순위 (복수 응답)

순위	내용	기업 수 (개사)
1	직원복지를 위한 활동	45
2	빈민층에 대한 기부	42
3	인권존중 및 규범 준수 (공정 근로자 처우 개선, 아동 및 강제노동 금지 등)	39
4	이중문화감동 예방을 위한 노력 (예: 한국어 대신 현지어 표기 표시 미련 등 현지직원과의 언어소통을 위한 노력 등)	37
5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28
6	환경 보호	24
6	고객 만족 및 가치 경영	24
8	주제국 정부 등 공공부문에 협력한 공익사업 (예: 건강 보건, 교육 지원 및 개선)	22
9	반부패를 위한 노력	15
10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	12
11	공익 마케팅	10
12	소외 및 소수계층, 다문화·다인종·다종교 사회, 공익을 위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예: LG전자의 코란콘)	8
합계		306

주: 내부 이해관계자 - 주주, 임직원, 임직원 가족, 공급업체, 협력회사, 비즈니스 파트너,  
외부 이해관계자 - 소비자, 고객사, 정부, 언론, 시민사회, 지역사회, 대중, 환경 보호 등

행위 계획하고 있는 CSR 활동내용 (복수 응답)

순위	내용	기업 수 (개사)
1	직원복지를 위한 활동	92
2	빈민층에 대한 기부	68
3	고객 만족 및 가치 경영	50
4	인권존중 및 규범 준수 (공정 근로자 처우 개선, 아동 및 강제노동 금지 등)	46
5	환경 보호	43
6	주제국 정부 등 공공부문에 협력한 공익사업 (예: 건강 보건, 교육 지원 및 개선)	39
7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38
8	이중문화감동 예방을 위한 노력 (예: 한국어 대신 현지어 표기 표시 미련 등 현지직원과의 언어소통을 위한 노력 등)	33
9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	23
10	반부패를 위한 노력	23
11	공익 마케팅	22
12	소외 및 소수계층, 다문화·다인종·다종교 사회, 공익을 위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예: LG전자의 코란콘)	13
합계		490

주: CSR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84개사와 CSR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실시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60개사  
를 합한 총 144개사를 대상으로 집계

CSR 경영 실시 기간



CSR 경영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CSR 경영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의 내용



CSR 경영 효과 또는 성과 측정 여부



CSR 경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복수 응답)



CSR 경영 확대를 위해 정부/유관기관에 건의하고 싶은 지원책 (복수 응답)



주: 1. 현재 설문기업 대상으로 특수요청을 요청한 문항. 단, 건의사항이 없는  
기업에 대해 답을 한 개로 응답 기업 있음  
2. 총 답변 수 203개에 대한 비율 표시